

# 아파트 건설현장의 기본은 '안전성' 과 '치환경'

- 대림산업 남대전 e-편한세상 현장 -

취재 · 사진 | 연기술 기자(skyway@safety.or.kr)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낭월동은 대전에서 손꼽히는 차세대 주거지역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심가에서 멀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외면 받던 지역이었으나 최근 웰빙 열풍을 타고 이곳의 자연환경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부터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낭월동은 석장산, 보문산 공원, 대전천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주거지역으로서는 나무랄 데 없는 자연친화적인 지역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지역 곳곳에 선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유독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대림산업의 남대전 e-편한세상 현장. 원래 대림산업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용 단지 등으로 인해 친환경적인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로 유명한데 이런 장점이 이 지역의 특성과 맞물려 떨어지면서 더욱 주가를 높이고 있는 것. 게다가 그 시공과정 또한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믿을 수 있는 아파트'로 지역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안전'과 '환경'이 두 가지를 통해 지역 최고의 현장으로 불리고 있는 이곳 현장을 찾아가 봤다.



## 소리 없이 강한 '안전'

굵직한 철문을 지나쳐 이곳 현장에 들어섰을 때 갖게 되는 첫 느낌은 '깨끗하다'는 것이다. 각종 자재들은 각을 맞춰 차곡차곡 쌓여져 있고, 현장 바닥에는 작은 종이조각 하나가 없다. 특히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소리'였다. 하루 출력인원이 330명에, 공정률이 45%인 현장에서 나는 소리치고는 매우 조용했다. 공정률이 45% 정도면 공사가 증반을 향해가는 만큼 한창 시끄러워야 정상이다. 그렇다고 현장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아 조용한 것도 아니다. 근로자 모두가 맡은 바 장소에서 바빠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의문점의 해답은 이곳 책임자인 이일규 소장을 만난 후에야 알 수 있었다. 이 소장이 가장 강조하는 사항은 '정리정돈'과 '철저한 계획에 따른 진행'이다. 이 소장은 일별·주별·월별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직접 챙기며 항상 정리정돈을 강조한다. 현장 점검 때는 매번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며 위험요소나 지저분한 곳을 찍어와 회의 때 직원들에게 보여주며 개선을 지시할 정도다.

또 이 소장은 각 공정이 시작되기 3개월 전부터 공정계획서를 철저히 짜도록 한 후 이를 해당 공정 근로자들에게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장 소장의 솔선수범에 따라 근로자 모두가 정리정돈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각자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을 묵묵히 하고 있으니 현장이 깨끗하고 조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 기본의 반복이 무재해를 이끈다

안전관리시스템 측면에서 이곳 현장이 타 현장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 하지만 다른 점은 없으나 차이점은 확실히 있다. 그것은 바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은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도 근로자 모두가 착용하고 있다.

또 교육도 철저히 진행되고 있다. 일상적인 정기교육을 기본으로, 위험공정을 실시하는 팀의 경우는 매주 마다 특별안전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다.

이런 철저함은 점검에서도 묻어낸다. 이곳에선 정기, 수시, 특별점검 등의 실시는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다 이곳은 관리자 1인 1동 관리 및 구역별 책임지정제를 실시해 점검에 있어 조금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시공에 앞서 단계별 위험요인조사 및 관련대책을 꾸준히 세우는 한편 매일 오전·오후마다 작업시작 전 TBM을 실시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안전은 서로를 존중할 때 오는 것

이곳 현장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원칙은 '인간존중'이다. 모든 동료들이 서로를 똑같

이 존중해줄 때 서로를 보호해주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나를 아끼듯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안전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이곳에선 다양한 감성안전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작게는 '서로 친근하게 인사하기 활동', '무더위 수박화채파티' 등에서부터 크게는 '보안경 닦아주기', '단합체육대회 개최' 등이 정기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그래서인지 이곳에서는 수시로 동료 근로자의 보호장구를 챙겨주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멈춤 없는 안전발걸음

이곳은 지난해 2월 시공에 들어간 때부터 현재까지 무재해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활동에 전 현장 근로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 결과다.

이런 노력 덕분에 이곳은 지금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안전현장이 됐다. 하지만 이곳은 이런 우수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 안전활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활동', '현장정리정돈 강화', '공종별 위험작업 사전안전계획 강화' 등이 현재 추진 중인 계획.

이곳은 '끊임없는 노력만이 무재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잘 보여준다. 이곳의 열정이 우리나라의 보다 많은 현장에 퍼져 '무재해 한국'이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



이 일 규 현장소장

### 기본에 충실하자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쫓기거나 자만심과 매너리즘에 빠져 순간적으로 기본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나는 것이지요. 또한 사고는 99% 잘했을지라도 1%가 부족하면 그 1%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운을 핑계로 대기도 하지만 운은 사람의 노력여하에 따라 좋게 작용하기도 하고 나쁘게 작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운을 핑계로 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 말처럼 바로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본과 기초가 탄탄하다면 사고가 발생할 틈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정 진 광 안전관리자

### 안전은 모두가 함께 하는 것

제 생각에 무재해의 성패는 인력관리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혼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혼자하겠다는 발상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현장의 모든 인원이 하나의 목표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때만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총 책임자인 현장소장의 지휘아래 공종별책임자, 협력업체 관리자, 공종별 팀장 및 작업자까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안전활동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